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회복'일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의 통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로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당하는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로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고통을 가운데 '회복의 통로'를 갈구하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차가운 사형틀일 뿐이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의 모습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여, 예수님을 함께 비난합니다. (39절) 힘겨운 고통 가운데 자기가 누구에게 무슨 하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42절) 이에 예수님은 그 소원에 응답하셨고 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43절)

세상의 눈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한 강도를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니 실리적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실리적인 것은 결코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없음을 증언합니다. (엡 1:5, 뱀전 1:5, 행 13:48, 고전 12:3)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인간이 이것에 대해 항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고 열심히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 질 때,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가 우리 자신을 내어 놓고 그 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5)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8/16(월)	8/17(화)	8/18(수)	8/19(목)	8/20(금)	8/21(토)	8/22(주일)

QT

이번 주 QT 말씀

8/16(월)	8/17(화)	8/18(수)	8/19(목)	8/20(금)	8/21(토)	8/22(주일)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보세요.
3.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은 선한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통로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셨나요?